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 분석과 학습 영향 연구 - 요청과 거절1) -

홍 서 연(남서울중학교 교사)

김 해 동(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의사소통기능 중 요청과 거절이라는 대화의 인접쌍(adjacency pairs)을 중심으로, 1) 원어민이 구사하는 다양한 요청과 거절의 표현 유형과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에 제시된 표현을 빈도상 비교 분석하며, 2) 실제 학습자들이 어떠한 요청과 거절표현을 주로 사용하는지 조사하는 것에 있다.

분석 결과, Gibbs(1981)가 조사한 원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13개의 요청표현과 중학교 2학년 5종의 영어 교과서에 가장 많이 제시된 요청표현 빈도 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에 의해 조사된 원어민의 22가지의 거절유형 중 교과서에는 단 3~6개 정도의 표현만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후회의 표현이나 사과의 표현보다는 직접 거절하는 형태의 유형이 더 많이 제시되어 있었다. 중학교 3학년 124명이 참여한 학습자 반응 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요청과 거절표현의 사용 정도는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과 거절표현의 빈도수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기능 습득은 교과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원어민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요청과 거절표현을 교과서에 포함하여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 영어 교과서 분석, 영어 교과서 개발, 학습자 반응, 의사소통능력, 화용론적 능력, 요청과 거절, 대화문, 중학영어

1) 본 연구는 2005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2005.12.17)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제언을 하여 주신 토론자, 질문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본 논문에 대하여 제언을 해주신 심사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2006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I. 서론

Rivers(1981)가 지적하듯이 외국어 학습의 경우, 교실내의 수업을 포함한 교실 밖에서의 학습의 대부분은 상당부분 교과서에 의존하게 되며, 학습자가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떻게 배우고, 어느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는 교과서를 통하여 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서가 목표 언어사용에 대한 정보를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하게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목표 언어능력 발달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기능 능력 신장과 관련이 깊은 교과서의 대화문은 목표 언어의 원어민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olfson(1989)은 일상생활의 대화는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저자의 직관에 근거한 화행패턴은 자연 상황 속의 실제적 패턴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실행하기로 한다. 첫째,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제시된 요청과 거절유형과 빈도를 분석하고, 둘째, 우리나라 학습자의 요청과 거절유형과 사용 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배우는 영어 교과서와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와의 상관관계를 점검할 수 있으며, 영어 교과서가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 활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질문, 권유하는 요청표현과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표현은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요 의사소통 기능의 하나이다. 7차 교육과정 개선안(이의갑 외, 2005)에서는 인접쌍(adjacency pairs)을 활용한 의사소통 기능 습득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요청과 거절의 경우는 영어 교과서에 제시하여야 하는 매우 주요한 인접쌍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그간의 요청과 거절표현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과서 분석(김영란, 2003; 조석원, 1999)은 교과서와 원어민이 활용하는 화용론적인 활용의 빈도 분석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자의 요청과 거절표현의 학습정도 측정은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Kasper(1992)가 지적한 대로, 언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요청과 거절의 화용론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고급 수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하여 대단히 적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아 비교적 외국어능력이 낮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넷째, 일반적으로 영어교재는 교과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으나(Tomlinson, 1988), 교재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수반될 수 있는 교사용 지침서,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씨디롬, 연습서, 교사가 준비하는 일회용 보조 교재나, 유인물, 사전, 문법책, 신문, 잡

지, 사진, 인터넷 자료 등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영어교재의 유형에 있어서 교과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교재에 속하며, 대상인 학습자는 단일어를 모국어로 활용하는 집단이다. 즉, 원어민용 교재도 아니며 학습자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아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단일한 교과서를 단일 모국어 배경을 가진 학습자에게 사용하는 상황의 경우, 목표언어 문화와 화법의 차이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교과서 구성 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하는 연구는 필요하리라고 본다.

II . 문헌 분석

1. 화행 : 요청과 거절

Canale과 Swain(1980), Bachman(1990) 등이 지적하듯이 언어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개념에는 적어도 문법적 능력 외에 대화를 이루어가는 담화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또는 화용 능력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서, 화용 능력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적절한 화행을 수행하는 것과 상대방이 의도한 화행을 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Austin, 1962; Bach & Harnish, 1982; Brown & Levinson, 1989; House & Kasper, 1987; Searle, 1969; 1975) 이러한 화용적 능력과 관련 화행의 유형 중 요청과 거절을 매우 주요한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Austin(1962)은 모든 발화는 전통적 의미를 지닌 행위와, 그 행위 이면에 내포된 숨은 뜻을 지닌 행위 및 그 숨은 뜻을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든 않든 간에 청자가 알아차리는 행위 등의 세 가지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고, 이들을 각각 발화(locutionary)행위, 발화수반(illocutionary)행위, 그리고 발화 후(perlocutionary)행위로 칭한다. 특히, 발화수반행위의 경우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판정(verdictives)발화, 행사(exercitives)발화, 언약(commisives)발화, 행태(behabitives)발화, 평서(expositives)발화로 분류한다. 이 중 요청과 거절화행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행사발화로서, 이는 권리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를 칭하며, 행사발화에는 'order, command, request, appoint' 등의 표현들이 있다. Searle(1969)의 경우는 발화수반행위를 단정(assertives)발화, 지령(directives)발화, 언약(commisives)발화, 표현(expressives)발화, 선언(declarations)발화로 구분한다. 이 중 지령발화가 요청과 거절표현과 관련 있는 범주으로써 지령발화는 청자가 무엇을 하도록 화자에 의해 지시되는 것을 가리킨다. 지령발화에는 'ask, bid, command' 등의 표현들이 있다. 요청과 거절의 개념과 관련하여, Bach와 Harnish(1982)는 요청을 청자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욕구로 정의하고 있다. 거

절의 발화행위는 청자의 요청, 제안, 초대, 의견 등에 대한 화자의 내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Bach-Harnish(1979)는 발화행위를 금지(prohibitives)행위, 요구(requirement)행위, 요청(request)행위, 자문(advisories)행위, 허가(permissives)행위 등의 5가지의 행위로 구분하였다. 그 중 요구행위, 요청행위, 금지행위가 특별히 요청과 거절표현과 관련된 행위이다. 요청행위의 표현으로는 'ask, beg, plead, request'가, 요구행위의 표현으로는 'bid, commend, demand, direct, order, require'가, 금지행위로는 'forbid, prohibit, restrict'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Searle(1975)는 요청표현이 화자가 자신이 말하는 것 이상 또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s)의 양상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는 요청을 나타내는 간접 화행의 표현 양상들을, 첫째, 청자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발화, 둘째, 청자가 행위를 수행할 것을 바라는 화자의 소망, 셋째, 청자가 미래에 행위를 수행할 것을 기원하는 것, 넷째, 청자가 행위를 수행하려는 의도나 자발적 의사, 다섯째, 청자가 행위를 수행하는 이유, 여섯째, 위의 요소들을 모두 내포하는 발화나 명시적 지시, 수행력 동사를 내포하는 발화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거절표현은 사과, 감사, 축사, 수락의 발화행위들과 함께 표현발화에 속한다고 본다. Brown과 Levinson(1987)은 요청은 체면위협행위(face-threatening act)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체면 위협적인 행위는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 친밀정도, 대화내용의 잠재적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House와 Kasper(1987)는 요청행위를 화용론적으로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의도가 성취되어야 하며, 동시에 청자와의 사회적 연대나 유대관계를 원만히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White(1993)도 요청을 화자의 이익을 위해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청자의 수행 능력과 의도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한다. 이처럼 요청표현은 청자와의 관계와 연계가 깊다. Bach과 Harnish(1982)는 거절의 발화행위가 화자가 청자의 발화 의도를 존중하지 못함을 나타내거나 청자의 발화 의도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치(social expectation)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인정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본다.

이와 같이 요청과 거절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적절한 화행을 수행하는 것과 상대방이 의도한 화행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 환경과 관련되어 언어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화행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언어 사용능력을 강조하는 영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 화행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선행연구

이러한 요청과 거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요청표현에 관한 연구는 Gibbs(1981)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실제 상황이 담긴 16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는 요청표현을 조사하였는데, 수집된 2,178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현의 의미에 따라 13개의 서로 다른 요청표현이 사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의 결과 분류표를 보면 13개의 요청표현의 범주가 표현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자주 사용되는 요청표현(want)과 그와는 반대로 드물게 사용되는 요청표현(embedded, obligation)이 빈도수로 표시되어 있다. 그의 연구에서 확보된 요청표현은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 준거의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Scarcella(1979)가 실시한 요청표현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제한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낮은 언어능력을 가진 언어 학습자들은 명령문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높은 수준의 학습자들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친한 사람 등을 제외하고는 명령문의 사용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매우 유사한 영어능력을 지닌 중학 3학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요청표현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영란(2003)이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표현을 Gibbs(1981)의 요청유형 분류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결과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원어민의 요청표현 빈도와는 거리가 먼 요청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유형들을 학생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이나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의 문제점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문영인(2006)의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1, 2학년생, 대학교 1학년생, 동일 대학교 4학년생 등 언어 수준이 다른 세 집단을 대상으로 ‘요청’과 ‘불평’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화용능력의 발달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연구 결과상, 각각의 집단은 응답 길이, 어휘, 요청의 언어 형태 등에서 각기 다른 화행 실현을 보여 언어적 능력과 화행능력이 연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교과서라는 언어 자료가 학습자의 화행 구사 능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는 실행되고 있지 않다.

거절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영어와 일어에서 나타나는 거절화행의 실현전략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일본인 모국어 화자, 영어 모국어 화자, 일본인 영어 학습자의 거절화행을 대조하여 각 집단의 언어 구현이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그리고 일본인 영어 학습자의 언어 전략 속에 사회언어적, 화용론적 전이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연구하였다. 실험 방법은 60명의 피실험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12가지로 나누어진 상황을 제시하고 요청, 초대, 권유와 제안에 대한 거절을 하도록 작성되었으며, 또한 각각의 문항은 지위를 달리하여

높은 지위, 낮은 지위, 동등한 지위의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의 차이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13가지로 나누어진 분석들에 따라 분류된 세 집단의 화행 실현 전략은 의미적 순서, 빈도, 양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요청에 대한 거절의 경우 일본인 영어 학습자와 일본인 모국어 화자는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며, 거절자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 경우 후회의 표현을 생략하며, 일본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영어 모국어 화자보다 더 많은 사과의 전략을 사용했다. 초대의 경우 일본인들은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는 전략이 다른 반면에 미국인들은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다. 권유와 제안의 경우 일본인 영어 학습자는 내용과 지위에 있어서 모국어의 사회 언어학적 전이를 나타내 보이며,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세 그룹 모두가 대안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안전략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상,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의 거절유형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되 대상은 교과서와 교과서를 사용한 학습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거절표현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장용대(1995)의 연구가 있다. 그는 거절에 관한 영어와 한국어의 화행대조 분석에서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각 문항을 요청, 초대, 제안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거절 상황을 만들어 그 표현의 차이를 알아보고, 또한 사회적 변인에 따른 표현 차이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집단들의 언어표현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연구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대한 요청과 거절의 표현에 대한 분석연구로는 조석원(1999)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인접쌍 분석 연구가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인접쌍의 의사소통기능 표현이 다소 부족하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습자의 요청, 거절표현에 대한 의사소통 가능 정도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벗어나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학습자의 실제 요청 유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교과서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중 일선학교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을 선정하여 그 곳에 제공된 대화문들을 대상으로 요청 표현과 거절표현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하 A, B, C, D, E로 표기하기로 한다. 대화문

을 수집한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다음과 같다. (주)디딤돌, (주)두산, (주)교학사,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지학사.

분석틀로는 Gibbs(1981)의 요청유형과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의 거절유형을 활용하기로 한다. Gibbs(1981)는 13개의 서로 다른 요청표현이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유형에 따라 빈도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요청의 기능은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한 Gibbs(1981)의 요청화행 분류표는 연구의 폭이 넓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의 거절유형 분석은 모든 거절유형에 대한 빈도수가 조사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에서 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절유형 상위 4가지 분류 - 후회의 표현, 변명형(설명형), 회피형, 부가어형 - 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거절유형은 무엇인지 분석하기로 한다. 실생활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수행하기 힘든 요청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절표현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어와 한국어에 있어서 거절화행을 중심으로 두 언어의 특성을 연구하여 원어민들과 일상적 대화에 있어서 무례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절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은 배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절유형에 대한 분석은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의 거절화행 기준을 바탕으로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절표현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절표현을 알아보고, 학습자들이 적절한 거절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과서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 외에 영어 전문 외부 연구자 2명을 대상으로 평가자 간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사를 위한 분석 범위는 Malay(1998)와 Cunningsworth(1995)가 제안한 바대로 교재의 가운데에 위치한 두 과를 분석하였다. 즉, 각 교과서의 7, 8과를 대상으로 5종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평가자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요청유형 빈도 분석이나 거절유형 빈도 분석 모두의 경우 .9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2. 학습자 대상 조사

학습자의 요청, 거절표현에 대한 조사 연구는 설문지 형태로 이루어 졌다. 설문지 조사에 있어서 설문 대상은 분석 대상인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를 전년도에 학습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남학생 63명(51%)과 여학생 61명(49%)으로 모두 124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학생은 같은 교사에게서 수업을 받았으며, 동일한 교과서를 활용한 점에서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즉, 같은 교사에게서 학습하였기에 교사 변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고,

같은 교과서로 학습을 하였기에 교과서 변인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재는 교사와 함께 더불어 교실 내의 학습자에게 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다 (Tomlinson, 1998). 이에 교재와 관련 자료 수집을 할 경우 가장 주요한 관련 요소에 대한 교사와 교과서를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05년과 2006년 국내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영어교육 관련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총 24편 정도가 교재와 관련된 연구이다. 이중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의 경우(김해동, 2004; 김해동, 2005; 정용주, 2005; 최희경·임연미, 2005; Park & Kim, 2004; Kim, 2004),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교과서의 변인 요인을 주로 통제하며 교과서를 활용한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관련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반실험적(quasi-experimental)인 상황에서 자료 수집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 교사와 교과서 변인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조사한 결과는 다소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설문지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기초하여 그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요청표현과 거절표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학생들이 모두 접해본 요청, 거절표현들을 보기로 사용하여 설문 응답을 용이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8문항 중 20문항은 1(가장 드물게 사용)~5(가장 자주 사용)의 척도로 특정 요청이나 거절의 표현 사용 비율을 조사한 문항이었으며, 주관식을 이용해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요청표현과 거절표현을 알아본 문항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요청유형 1은 문항 1~5, 요청유형 2는 문항 6~9, 요청유형 3은 문항 10~13, 요청유형 4는 문항 14~16, 거절유형 1은 문항 17~20, 거절유형 2는 문항 21~24까지로 나누었다. 문항 25부터 32까지는 학생들이 직접 답을 쓴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2005년 4월 14일에 이루어졌으며 중학교 3학년의 9개 반 중 무작위로 3개 반을 선정하여 영어 수업시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 시간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 있어 설문조사 형태로 학습자들의 요청과 거절에 대한 반응을 자료 수집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언어 사용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상황에 대한 영어 표현을 제시하고 화용론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DCT(Dicourse Completion Test)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실제 과제 활동을 통해 표현되는 학습자들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근거하여 설문조사 형태로 학습자들의 반응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교실 수업을 벗어난 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요청과 거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

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문영인(2006)이 본인의 연구에서 발견하였듯이 DCT를 통한 언어 자료 수집 방법은 중학생과 같은 언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화용능력을 측정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도구로 판단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형태의 학습자 언어 반응을 유도한 것은 학습자들이 나름대로 편안한 상태로, 즉 시험이 아닌 상태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에, 교실 영어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차후의 고등학생이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본 연구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보다 정교한 자료 수집 방식을 활용한 자료 수집을 시도하기로 한다.

결국,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써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DCT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설문조사 형태의 영어 표현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는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추후에 영어 수준이 보다 높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경우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자료 조사 도구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연구 결과

1. 교과서 분석

다음 <표 1>은 분석 대상 5종의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표현의 분포 상황을 보인다.

<표 1> 중학 교과서에 나타난 요청유형의 분포 상황

(단위 : %)

		Gibbs (1981)	교과서					총계 (445)
			A	B	C	D	E	
1. 소망형 (Want/desire)	<i>I would like to</i>	20	13 (13.9%)	8 (14.3%)	8 (8.16%)	26 (22.4%)	11 (13.6%)	66 (14.8%)
2. 가능형 (Ability)	<i>Can?</i>	16	17 (14.2%)	10 (17.5%)	13 (13.3%)	15 (12.9%)	6 (7.4%)	61 (13.6%)
3. 기술형 (State)	<i>That's my tennis ball.</i>	12	0	0	0	0	0	0
4. 허가형 (Permission)	<i>May I...?</i>	12	0	0	0	2 (1.7%)	1 (1.23%)	3 (0.67%)

		Gibbs (1981)	교과서					총계 (445)
			A	B	C	D	E	
5. 직접질문형 (Direct question)	<i>What time is it?</i>	12	28 (26.8%)	23 (40.3%)	45 (45.9%)	37 (31.8%)	33 (40.7%)	166 (37.3%)
6. 명칭형 (Name only)	<i>Hamburger</i>	8	0	0	0	0	4 (4.9%)	4 (0.9%)
7. 소유형 (Possession)	<i>Do you have...?</i>	6	1 (1.07%)	1 (1.75%)	2 (2.04%)	1 (0.86%)	0	5 (1.1%)
8. 직접요청형 (Direct request)	<i>Give me a hamburger.</i>	5	5 (5.37%)	0	3 (3.06%)	13 (11.2%)	2 (2.4%)	23 (5.1%)
9. 부과형 (Imposition)	<i>Would you mind?</i>	3	0	0	0	0	0	0
10. 위임형 (Commitment)	<i>Will you...?</i>	3	4 (4.30%)	3 (5.26%)	2 (2.04%)	3 (2.5%)	7 (8.6%)	19 (4.2%)
11. 유일형 (Unique)	<i>How about a hamburger?</i>	2	15 (16.1%)	2 (3.5%)	20 (20.4%)	14 (12.0%)	14 (17.2%)	65 (14.6%)
12. 매입형 (Embedded)	<i>I was wondering if you could...?</i>	1	0	0	3 (3.06%)	0	2 (2.4%)	5 (1.1%)
13. 의무형 (Obligation)	<i>Shouldn't you?</i>	0.1	10 (10.7%)	10 (10.7%)	2 (2.04%)	5 (4.3%)	1 (1.23%)	28 (6.2%)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각 교과서 별로 분석한 요청표현의 전체적인 분포 상황을 총계를 통해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표현은 직접질문형이 37.3%, 다음으로 소망형 14.8%, 유일형 14.6% 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의 비율과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Gibbs(1981)의 분류에서는 소망형, 가능형, 기술형 순으로 요청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A 교과서에서는 직접질문형(26.8%), 가능형(18.2%), 유일형(16.1%)순으로 제시되었고 누락된 표현은 4부분이었다. 특히 직접질문형의 표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것은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경우보다 비율상 2배 가까이나 제시된 점을 알 수 있다. B 교과서는 A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직접질문형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가능형(17.5%), 의무요청표현(17.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B 교과서에서는 의무요청의 표현이 17.5%로 타 교과서에 비해 높게 제시되었고 이는 원어민들의 사용 빈도수(1%)보다 무려 17배 정도 많이 제시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혀 제시되지 않은 요청표현도 6부분으로 타교과서에 비해 가장 적은 요청표현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C 교과서에서도 직접질문형의 요청표현이 45.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C 교과서에서는 원어민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유일형이 20.4%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다른 4개의 교과서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또한, 다른 교과서에서는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간접의문 형태의 요청표현도 3.06%정도 제시되고 있다. D 교과서에도 직접질문형의 요청이 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소망(22.4%), 가능형(12.9%)으로 제시되고 있다. 소망, 바람의 요청표현은 22.4%로 타 교과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누락된 부분은 4부분으로 기술형, 명칭형, 부담형, 매입형 표현 등이 누락되었다. E 교과서에서도 직접질문형의 요청표현이 40.7%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일형(17.2%), 소망표현(13.58%)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E 교과서에는 누락된 표현은 3부분으로 비교적 다양한 요청표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교과서의 차이점은 타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았던 명칭형의 표현(4.9%)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 2>는 Gibbs(1981)의 요청유형 분류표와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유형 빈도수의 Pearson r 상관관계와 각 교과서 간의 Pearson r 상관관계를 조사한 표이다.

<표 2> Gibbs(1981)의 요청유형 분류표와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유형 빈도수의 상관관계

	Gibbs(1981)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E 교과서
A교과서	.352					
B교과서	.366	.880				
C교과서	.239	.880	.832			
D교과서	.512	.904	.827	.855		
E교과서	.280	.839	.815	.960	.872	

이 상관관계 분석표를 보면,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청표현과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요청표현 비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과서 간의 상관관계 수치를 보면 .815부터 .960까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표현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비슷한 종류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교과서가 대부분이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요청표현과는 거리가 있는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3>은 각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거절표현의 종류와 빈도수를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의 분석(부록 참조)에 근거하여 나타낸 표이다. 이들의 연구는 Gibbs(1981)의 분류처럼 모든 거절유형에 대한 상위, 하위 그룹과 빈도수가 조사되지 않은 제한점으로 인해 어떤 거절표현이 자주 사용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제시한 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절유형 상위 4가지인 (1) 후회의 표현, (2) 변명형(설명형), (3) 회피형, (4) 부가어형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거절유형들의 종류와 빈도를 알아보려 한다.

<표 3> 교과서에 나타난 거절유형의 분포 상황(단위 %)

유형	교과서					계 (42)
	A	B	C	D	E	
1. 직접거절형	7 (50%)	2 (40%)	0	1 (12.5%)	2 (40%)	12 (28.5%)
2. 회피형	1 (7.1%)	0	2 (20%)	0	0	3 (7.1%)
3. 부가어형	2 (14.2%)	0	0	0	1 (20%)	3 (7.1%)
4. 후회의 표현	3 (21.4%)	2 (40%)	5 (50%)	2 (25%)	2 (40%)	14 (33.3%)
5. 설명형	1 (7.1%)	0	0	4 (50%)	0	5 (11.9%)
6. 변명형	0	1 (20%)	0	0	0	1 (2.3%)
7. 비난형	0	0	2 (20%)	0	0	2 (4.7%)
8. 대안형	0	0	1 (10%)	0	0	1 (2.3%)
9. 연기형	0	0	0	1 (12.5%)	0	1 (2.3%)

A 교과서에 나타난 거절화행을 보면,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표현으로서 직접거절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위 4가지 표현인 후회의 표현, 설명형, 회피형, 부가어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매우 낮은 빈도수로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적절한 거절표현을 학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게다가 교과서의 거절유형이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의 22가지 거절표현 중 5가지만 제시되었기에 학생들이 적절한 거절표현을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B 교과서에는 직접거절형과 후회의 표현이 2번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형(변명형)의 표현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회피형, 부가어형의 표현이 제시되지 않았다. C 교과서에는 후회의 표현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회피형이 높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타교과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비난형과 대안형이 제시되었기에 타교과서와 비교하여 볼 때 약간의 거절유형의 다양성이 추구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 빈도수를 보면 매우 낮다. D 교과서에는 설명형의 유형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후회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위 4가지 표현 중 단지 설명형과 후회의 표현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 교과서에는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절화행 중 하나인 후회의 표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주 사용되는 상위 4가지의 거절화행 중 단 2가지만 제시되었기에 실생활에서 적절한 거절화행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본다.

다음의 <표 4>는 부가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요청표현에 대한 수락과 거절의 빈도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표 4〉 교과서별 수락과 거절의 빈도와 분포

교과서 인접쌍	A	B	C	D	E	총계
수락	24 (63.2%)	8 (61.5%)	18 (64.3%)	31 (79.5%)	19 (79.2%)	100 (70.5%)
거절	14 (36.8%)	5 (38.5%)	10 (35.7%)	8 (20.5%)	5 (20.8%)	42 (29.5%)

각각의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수락과 거절은 요청의 인접쌍이지만 수락과 거절의 분포를 보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든 교과서들이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락의 분포는 70.5%, 거절의 분포는 29.5%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거절의 분포가 수락의 분포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이 수행하기 힘든 요청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절표현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거절은 요청과 마찬가지로 소위 ‘체면 위협 행동’(Brown과 Lavinson, 1987)이므로 상대방의 체면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그 화행을 수행하는 방법이 요구되므로 교과서에서 거절의 분포를 적정한 비율로 높여서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연구 분석 대상이었던 5종의 교과서에 평균적으로 수락 70%, 거절 30%를 차지하고 있는 요청에 대한 수락과 거절의 빈도수는 수락 60%, 거절 40% 정도의 비율로 다시 조정하여 학생들이 거절표현에 대한 사용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학습자 반응

학습자의 요청, 거절표현의 자료는 설문지를 통하여 얻었다. 요청유형 1은 ‘햄버거 주세요.’ 라는 요청표현을 본인이 할 경우, 어떤 요청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보기로 제시된 문항과 이에 대한 응답 평균값은 괄호와 같다. 1) Can I have a Hamburger?(2.88), 2) Give me a Hamburger.(3.07), 3) Could you give me a Hamburger?(2.83), 4) Hamburger.(3.05), 5) Would you give me a Hamburger?(2.66). 평균값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시된 모든 문항의 사용 정도가 비슷하였으며, 그 중 보기 2번과 4번이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보통 정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이 2가지가 다른 보기들에 비해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었다. 응답결과, “Would you”라는 표현이 5가지의 보기 문항 중 가장 드물게 사용한다고 나왔는데, 이는 설문 응답자들이 사용한 교과서에 “would you”라는 표현이 단 3번 제시되었기에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사용 빈도가 저조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Hamburger”라고만 요청하는 명칭형의 요청표현은 교과서에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용 비율이 제시된 “would you”라는 표현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 이유는 공손하게 요청표현을 하는 학습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표현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설문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유추해석 된다. 교과서에 높은 비율로 제시되어 있는 “Can”과 “Could”를 이용한 요청표현 사용의 척도가 평균 2.5 정도의 결과로 나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청표현의 학습이 더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청유형 2는 “~에 가자.”라는 표현으로 “Pizza Hut에 가자.”라는 예문을 사용하였다. 요청표현의 보기로 제시된 문항과 응답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6) Let’s go to Pizza Hut.(4.50), 7) How about Pizza Hut?(2.91), 8) Why don’t we go to Pizza Hut?(2.37), 9) Will you go to Pizza Hut with me?(2.45). Gibbs(1981)의 요청표현에서는 유일형의 표현이 전체 사용의 2%를 차지하는 표현으로서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요청표현의 그룹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 응답자인 중학교 학생들의 응답에는 6번의 “Let’s”라는 요청표현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표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교과서에는 “Let’s...”, “Why don’t you...?” “How about...?” “Will you...?” 순으로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응답 비율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청유형 3은 “지금 몇 시죠?”라는 요청표현에 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은 보기로 제시하였다. 10) What time is it now?(4.70), 11) I’m wondering if you could tell me what time it is now.(1.54), 12) May I ask what time it is?(2.45), 13) Do you have the time?(2.93).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10번 문항으로 직접 질문형의 요청표현 “what”을 이용한 표현이었다. Gibbs(1981)의 조사에서도 직접질문형 - 소유형 - 허가형 - 매입형 순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사용한 교과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교과서에서 제시된 요청표현의 비율과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직접질문형의 요청표현은 26.8%로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고 직접질문형의 요청표현에 대한 학생들이 사용 정도도 5.37%로 매우 높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허가형 “May I...?”와 매입형 “I’m wondering...”이란 표현의 사용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청유형 4는 “거실 색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We _____ change the color of the living room.”라는 요청표현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하는 것이었다. 14) want to (4.38), 15) would like to(3.47), 16) would love to(2.50). 이곳의 소망표현 중 대표적인 표현인 “want”와 “would like to”의 표현의 사용 정도가 평균 4.38, 3.47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Gibbs(1981)가 조사한 요청표현의 사용 비율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교과서에는 “would like to - want - would love to” 순으로 제시되어 있고 학

생들의 응답결과도 유사하다.

거절유형 1은 거절표현에 관한 조사이며, 다음 제시된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는 거절표현 중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절표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다. “A : Can you wash the dishes? B : _____ I’m busy now.” 17) No, I can’t.(3.98), 18) Well.. (2.90), 19) I’m so sorry.(4.34), 20) Maybe next time I’ll do it.(2.13). 여기서, 학생들의 응답은 후회의 표현인 “I’m so sorry.”와 직접거절형의 유형인 “No, I can’t.”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절유형 중 하나인 부가어형 유형의 “well..”의 사용 정도는 2.9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보통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20번 문항은 학생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거절유형의 빈도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교과서에는 직접거절형을 이용하여 거절하는 표현이 전체의 50%를 차지하였고, 후회(사과)를 통하여 거절하는 방법이 21.4%, 부가어형을 통해 거절하는 방법이 14.3%였다. 학생들의 응답 중 직접거절형의 형태로 거절하는 “No, I can’t”라는 사용이 높은 이유는 교과서에 높은 빈도수로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많이 접해본 거절표현이라 사용 빈도가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I’m so sorry.”라는 표현의 사용 빈도가 직접 거절하는 표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거절을 하는 경우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학생들의 내면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거절유형의 빈도와 학생들의 응답이 후회의 표현을 제외하고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절유형 2 역시 거절표현을 조사한 문항으로, 제시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A : Do you have time this afternoon? B : ____.” 21) No, I don’t.(4.16), 22) I’m not sure. (2.83), 23) Sorry, I don’t have.(3.79), 24) You had better ask another friends.(1.68). 학습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21번과 23번 문항으로 직접거절형과 후회의 표현형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 7.1%로 제시된 회피형인 “I’m not sure”의 사용 정도는 중간 정도의 척도를 나타냈으며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24번 문항의 사용 빈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유형일수록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제시되지 않은 유형일수록 더 낮은 빈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과 거절유형의 빈도수와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요청과 거절유형 사용 비율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요청유형은 $r = .69$, 거절유형은 $r = .81$ 의 결과가 나왔다. 이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일수록 학생들이 자주 사용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음 <표 5>는 주관식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응답한 요청과 거절표현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응답자 수, 그에 따른 백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응답자 수는 총 124명이며, 응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표 5〉 문항에 따라 학생들이 응답한 요청과 거절표현의 사용유형

문항	학생들이 응답한 요청과 거절표현의 사용유형	응답자 수 (124명)	백분율(%)
1. 같이 찾아보자.	<i>Let's</i>	104	83.9
	<i>Why don't you?</i>	3	2.4
2. 방을 청소해주겠니?	<i>Can</i>	60	48.4
	<i>Could</i>	23	18.5
	<i>will</i>	17	13.7
	<i>Would</i>	14	11.3
	<i>Please</i>	1	0.8
3. 우리 영화 보러 갈래?	<i>Will</i>	36	29.0
	<i>Let's</i>	30	24.2
	<i>Could</i>	17	13.7
	<i>Why don't you</i>	14	11.3
	<i>How about</i>	7	5.6
	<i>Can</i>	3	2.4
4. 나는 영화 보러 가고 싶어.	<i>want</i>	88	71.0
	<i>would like to</i>	16	12.9
5. 이것은 무엇이지?	<i>what</i>	121	97.6
6. Can you take a walk with me? 에 대한 거절표현	<i>I'm sorry</i>	54	43.5
	<i>No, I can't</i>	43	34.7
	<i>I'm afraid</i>	14	11.3
7. 햄버거가 먹고 싶다.	<i>want</i>	89	71.8
	<i>would like to</i>	6	4.8
	<i>wish</i>	3	2.4
	<i>Give me</i>	1	0.8
8. 도와주시겠어요?	<i>could</i>	69	55.6
	<i>can</i>	23	18.5
	<i>would</i>	18	14.5
	<i>will</i>	1	0.8

먼저, 1번 문항을 보면 “~에 가자.”라는 표현은 “Let’s, How about?, Why don’t you? What about?”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 중 “Let’s”라는 표현을 사용한 학생이 83.9%를 차지하였으며, “Why don’t you?”는 2.4%의 학생들이 사용하였고 그 외 “How about?”과 “What about?”의 표현은 주관식 응답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How about”과 “What about”의 경우 “How about this jacket?”의 경우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지만,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라고 물어볼 경우, “영화 보러 가는 것은 어때?”라는 요청 또는 제안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 “What about”도 마찬가지로 “How about”과 비슷하게 쓰인다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기에 이들 표현들도 요청표현으로 간주하였다. 결국, 교과서에 “Let’s”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제시되어 학생들의 응답에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제시되도록 유도한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 2번 문항은 “~해 주겠니?”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들 중 “Can”을 사용하는 학생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 표현의 빈도수와 학생들의 요청표현 사용 비율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번 문항은 “~할래?”라는 표현에 맞는 요청표현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문으로서, “Will”과 “Let’s”의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응답자 수가 전체의 반을 차지하며, 그 외의 표현들은 사용 빈도가 저조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문구에 따라 상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화 보러 갈래?”라는 표현은 학생들과 친근한 상황이고 의견을 처음 제시하는 상황을 가정할 것이기에 “Will”과 “Let’s”를 제외하고는 선택 빈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과서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않은 까닭에 다양한 학습자의 반응을 기대하기란 힘들다고 추론된다. 이로써 이 문항에서 사용된 표현들 역시 학생들의 요청표현 사용 빈도는 교과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4번 문항은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 표현에서는 “want”를 사용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7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would like to”를 사용한 학생은 12.9%가 되었다. 교과서에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의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학생들의 응답에는 “want”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would love to”를 사용한 학생들은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5번 문항은 직접 질문형의 요청표현을 사용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의 응답결과 “what”을 사용한 학생이 전체의 97.6%를 차지하고 있다. 6번 문항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거절을 나타내는 표현을 물어본 문항이었다. 제시된 학생들의 대답은 전체 학생 중 “I’m sorry.”(43.5%), “No, I can’t.”(34.7%), “I’m afraid”(11.3%)로 이루어져 있다. 교과서에는 직접거절형의 유형이 후회의 표현형보다 약간 더 많이 제시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으로써 후회의 표현형을 이용한 거절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7번 문항은 “-하고 싶다.”라는 표현에 사용하는 요청표현으로 역시 “want”를 사용한다는 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므로 교과서에는 더욱 다양한 소망표현을 나타내는 요청유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요청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8번 문항은 “~해주시겠어요?”라는 표현으로, 이 문항에서는 “could”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 역시,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could you...?”라는 표현을 학생들이 학습하였기에 다른 표현들에 비해 이 표현을 사용하여

요청하는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다른 표현들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생이 많은 표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5종의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에서 수집한 요청유형과 거절유형을 Gibbs(1981)의 13가지 요청표현의 유형들과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의 거절유형들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요청과 거절표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교과서 요청유형 분포의 경우 Gibbs(1981)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다양성과 빈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원어민의 요청유형에서 3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형’은 교과서에 단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교과서에서 직접적인 요청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국어의 모국어 화자들이 명령형 같은 직접적인 요청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Ko, 1995) 이러한 국어의 특성이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영어의 요청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 유일형도 많이 사용된 점 역시 교과서의 특징이었다. 또한 전혀 제시되지 않은 요청유형도 최소 3가지에서 5가지로 유형의 다양함에 있어서도 부족하였다. 교과서에서 사용된 요청표현의 유형별 분석 결과는 요청표현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분석 대상 교과서 거절유형 분포의 경우,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요청유형과 마찬가지로 다양성과 빈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Beebe, Takahashi와 Uliss-Weltz(1985)의 요청유형은 22가지이며 그 중 자주 사용되는 상위 4가지 표현은 후회의 표현, 설명형, 회피형, 부가어형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거절유형은 직접거절형이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회피형, 부가어형, 후회의 표현 순서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것은 실제 영어의 거절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직접 거절유형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2가지의 다양한 거절유형 중 대부분의 교과서가 단 3~6가지의 거절유형만 제시하고 있어 유형의 다양함에 있어서도 부족하였다. 교과서에서 사용된 거절표현의 유형별 분석 결과는 거절표현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 변인과 교과서 변인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배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한 방식은 반실험적인 방식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과 거절표현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교과서에 제시된 요

청과 거절표현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교과서에 많이 제시되어 있는 요청표현과 거절표현일수록 학생들이 더 많이 자주 사용하고 드물게 제시되어 있거나 아예 제시되어 있지 않은 표현은 학생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교과서와 학생들의 언어표현 간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수립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요청과 거절표현에 대한 발화행위는 교과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교과서의 요청유형과 거절유형의 제시는 다양하지 못하고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과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들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거절유형의 경우, 그 빈도수도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겠다. 첫째, 교과서의 대화문은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서가 아닌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으로부터 수집되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되어 그 진정성이 확보되고 화용론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진정성 있는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도 인접쌍을 의사소통 예시문의 일부로 포함하고, 김진완(2005)이 제안하듯이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과 중등에 적합한 의사소통 기능문을 제시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써 수락과 거절의 표현의 인접쌍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락과 거절의 표현들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시에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표현들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교과과정의 개선을 위한 제언에서, 인접쌍을 활용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결과는 교과서 구성시에 인접쌍을 활용한 교과서 구성이 타당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 중 화용론적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은 화용론적 이론에 맞는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요청과 거절표현 중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요청과 거절표현을 학생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수업을 학생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습자에게 화용론에 대한 지각을 갖게 해야 한다. 화용론에 대한 지각이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의사소통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 요인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언어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상황 요인에 대한 인식이나 언어형식이 각 문화권 혹은 언어권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구성 활용하고 학습자들이 새로이 개발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요청과 거절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후속 현장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상황 설명을 하고 응답을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요청 형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요구보다 더 어렵게 반응되는 어려움이 있어 시험 형태가 아닌 설문조사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다. 추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한글로 상황 설명을 하고 응답을 받는 DCT를 개발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성곤 · 송미정 · 윤정미 · 김영 · 윤미정(2002).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두산.
- 김영란(2003).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표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용진 · 홍완기 · 강용순 · 김지탁 · 정사열 · 양미라 · 강윤희 · Daniel, Lee(2002).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주)도서출판디딤돌.
- 김진완(2005). **영어과 교육과정(중등영어) 개정시안에 대한 소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저).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및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자료 ORM 2005-41, 159-165.
- 김충배 · 최인철 · 전병쾌 · 강용구 · 유제분 · 최현순(2002).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김해동(2005). 영어교재의 과제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3), 191-218.
- 문영인(2006). 요청과 불평에서 나타난 언어 수준별 화용능력 발달 특징.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1), 193-213.
- 배두분 · 박성수 · 김정렬 · 김준식 · 이동주 · Dusthimer, Carl(2002).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주)교학사.
- 이성호 · 이기정 · 이다미 · 홍민표 · 박인순 · 홍영희(2002).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주)지학사.
- 이의갑 · 임찬빈 · 진경애 · 김진석 · 이윤 · 장경숙 · 김미경 · 이문복 · 최진황(2005).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C 2005-12.
- 장용대(1995). **영·한 화행대조분석-‘요청’과 ‘거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정용주(2005) 초등교사의 영어구사능력: 초등영어교재속의 구문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11(1), 33-58.
- 조석원(1999).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과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최희경 · 임연미(2005).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교사용 지도서의 활용실태 및 개선 방안. **초등영어교육**, 11(1), 85-122.
- Austin, J.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 K. & Harnish, R. (1982).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s*. Cambridge, Mass: MIT Press.
-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ebe, L., Takahashi, T., & Uliss-Weltz, R. (1985). Pragmatic transfer in refusals. In E. S.

- Anderson, S. D. Krashen & R. C. Scarcella (eds.),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a second language* (pp. 55-73). New York: Newbury House.
- Brown, P. & Levinson, S. D.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unningsworth, A. (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London: Heinemann.
- Gibbs, R. W. Jr. (1981). Your wish is my command: convention and context in interpreting indirect request.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0, 431-444.
- House, J. & Kasper, G. (1987). Interlanguage. In W. Lorcher & R. Schultz (eds.), *Perspectives on language in performance* (pp. 250-288). Tübingen: Narr.
- Kasper, G. (1992). Pragmatic transfer. *Second Language Research*, 8, 203-231.
- Kim, Haedong (2004). Learners' Opinions on Criteria for ELT Materials Evaluation. *English Teaching*, 59(3), 3-28.
- Kim, Haedong (2005). Analysis of Sources of Interest in ELT Material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1(1), 279-304.
- Ko, In-Soo (1995). *A cross-cultural study of request in English and Korean*.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ley, A. (1998). Squaring the circle - reconciling materials as constraint with materials as empowerment. In B. Tomlinson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pp. 279-29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YoungJa & Kim, Haedong (2004)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advance organizers on English listening. *Primary English Education*, 10(1), 333-354.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arcella, R. (1979). On speaking politely in a second language. In C. A. Yorio, K. Perkins & J. Schachter (eds.), *On TESOL '79* (pp. 275-287). Washington, DC: TESOL.
- Searle, J.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 (1975). Indirect speech act. In P. Cole &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 (pp.59-82). New York: Academic Press.
- White, R. (1993). Saying please: Pragmalinguistic failure in English interaction. *ELT Journal*, 47(3), 193-203.
- Wolfson, N. (1989). *Perspectives: Sociolinguistics and TESOL*. New York: Newbury House.

• 논문접수 : 2006년 4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6년 5월 15일 / 게재 승인 : 2006년 5월 24일

부록

Beebe, Takahashi 와 Uliss-Weltz(1985)의 거절유형 분류표

영역	문장	의미
1. 직접거절형 (direct 'no')	<i>No. I can't, I won't, I refuse</i>	직접적으로 거절의 발화 수반력을 지닌 동사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없음을 직접적으로 표현
2. 후회표현형 (statement of regret)	<i>I'm (so, very, really) sorry</i>	거절에 대한 유감의 의사를 전달
3. 철학형 (philosophy)	<i>We should look before we leap. Accidents will happen.</i>	사람들이 공감하는 철학적 표현을 이용한 간접적인 거절
4. 변명형 (excuse)	<i>I can't reschedule the meeting do to the deadline. My children will be home that night</i>	거부를 하는 이유를 제시 또는 상황을 설명
5. 대안형 (alternative)	<i>Why don't you ask Tom? He is free now. I can make it at 6 o'clock but not at 5.</i>	타인을 추천하거나 수정된 안을 제시
6. 조건형 (set condition)	<i>If you had asked me last week, I would have helped you definitely</i>	상대방의 요청을 수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언급
7. 미래약속형 (promise of future acceptance)	<i>Next tome I'll do that</i>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미래에는 수락할 것을 약속
8. 비난형 (criticism)	<i>That's an unreasonable request /offer</i>	상대방이 화자에게 원하는 사항을 비난
9. 동정형 (request for help or empathy)	<i>I need you help on this. I guess you would understand my status now</i>	청자의 도움이 필요함을 언급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것을 요청
10. 설득형 (letting off the hook)	<i>Don't worry about it. You don't have to do that.</i>	매우 간접적인 거부 전략으로써, 상대방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어떤 요청이나 제안을 할 경우 그 필요성을 의심하여 상대방이 그것을 취소하도록 설득하는 전략이다. 상대방을 곤경에서 구함과 동시에 요청이나 제안을 거부하는 기능
11. 주제변경형 (topic switch)	(강의노트를 빌리고자 하는 요청에 대해) <i>I think everyone likes the class</i>	현 화제와는 다른 새로운 화제를 도입
12. 연기형 (postponement)	<i>We'd better talk about it later</i>	현 화제에 대한 논의를 연기할 것을 제안
13. 유머형 (joke)	(영화를 보러 가자는 제안에 대해) <i>I gain some weight whenever I go to the movies because I eat a lot while watching.</i>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우스운 표현을 사용하여 거부

영역	문장	의미
14. 질문 반복형 (repetition of original request)	<i>Help you move the furniture?</i>	원래의 요청이나 초대 등을 되물어 봄.
15. 부분 반복형 (repetition of part request)	<i>Next Tuesday?</i>	원래 요청의 특정 단어나 구만을 반복
16. 꾸짖음형 (guilt trip)	<i>You said you would return it last night</i>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전에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꾸짖음
17. 부정적결과 기술형(statement of negative consequence)	<i>I will be deady tired after that.</i>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거부
18. 회피형 (hedging)	<i>Gee, I'm not sure, I don't know</i>	확답을 회피함.
19. 원칙형 (principle)	<i>I never do business with anyone I know well</i>	자신의 생활 원칙을 언급함으로써 거부의사 표현
20. 자기방어형 (self-defense)	<i>I am doing my best.</i>	화자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상대방의 더 나은 성과 요구에 대해서 자신의 실적을 정당화 함.
21. 유한적동정형 (indefinite reply)	<i>I think the meeting place is fine</i>	상대방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분만 동조를 표하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22. 부가어형 (adjunct)	1. <i>empathy.</i> 2. <i>Pause filler.</i> 3. <i>statement of positive feeling /opinion.</i> 4. <i>gratitude/appreciation.</i>	1.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 2. 주된 행위를 이용한 거절 후 발생한 휴지를 메우는 표현 3.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함을 표시 4. 상대방의 의견에 감사 표시

ABSTRACT

Analysis of Dialog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Their Effects on Learning : Request and Refusal Expressions

Suh-Yeon Hong(Teacher, NamSeoul Middle School)

Hae-Dong Kim(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1) to compare the frequency of request and refusal expressions in dialogs in the secon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in Korea with those of native English speakers, and 2) to identify the frequency of request and refusal expressions used by the middle school Korean students of English. For the analysis of the textbooks, various types of request patterns which are identified by Gibbs (1981) and refusal patterns which are verified by Beebe, Takahashi and Uliss-Weltz (1985) are used as referential tools. Five different textbooks were chosen and analysed. A total of 124 students took part in a questionnaire survey asking the use of request and refusal expression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t all of the thirteen types of request expressions that English native speakers often use were presented throughout the textbooks analysed. The order of the frequency in the request types between the textbooks and Gibbs' (1981) data from English native speakers were different. The averag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orders was .35, indicating a low level of relationship. Second, among the twenty-three types of refusal expressions, only three to six expressions were presented throughout the five textbooks analysed. Thir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reveals that there was a high level of correlation in the order of frequency in request and refusal expressions between the students' responses and the textbook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n the expressions of request was computed as $r = .69$,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n the expressions of refusal was computed as $r = .81$, indicating high levels of relationships.

Based on the findings, the followings are proposed. First, the textbook writers have to develop a type of dialog which may include a variety of authentic expressions of requests and refusals when aiming to improve the target students'

discourse communicative competence. Second, both teachers and students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using various types of request and refusal expressions in an appropriate manner. In other words, it should be necessary for English teachers in Korea to teach not only forms of language but also informations related to expressions of request and refusal. It may eventually help Korean learners to improve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Key Words : materials analysis, textbook development, communicative competence, learner responses, adjacency pairs, dialogs, request and refusal, middle school english